

“구례화엄사 나들목, 설계 잘못돼 교통사고 빈발” 원성

일반도로 합류시 방향 전환 급격해 위험...개통 직후부터 사고 빈발 개선책 급한데...도로공사·구례군 “구조상 문제 검토” 원론 답변만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고속국도 제27호선) 구례화엄사 나들목 진출입로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도로 구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구례화엄사 나들목 진출입로는 도로 구조상 고속도로를 벗어나 일반도로(국도 제17호선)로 합류하려면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해, 제때 속도를 줄이지 못할 경우 충돌은 물론 추락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운전자들이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 구간을 자주 지나는 운전자와 주민들은 애시당초 ‘잘못 설계된 도로’라며 해당 교차로의 구조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2일 구례군과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등에 따르면 하루 5500여 대가 지나는 구례화엄사 나들목 진출입로(구례군 용방면 중방리)는 지난 2011년 고속도로 개통 당시 고속도로를 일반도로와 연결하기 위해 국도 위를 가로지르는 교량 형태로 설치됐다.

문제는 이 나들목은 고속도로를 지나 국도로 합류하는 도로 선형이 흔히 볼 수 있는 유선형이 아닌 ‘ㄱ’자 형태로, 국도 합류를 위해서는 90도로 좌회전 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자칫 제때 속도를 줄이지 못하거나 초행길인 경우 좌회전 중 가드레일에 충돌하거나 옹벽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국도로 빠져나가려는 차량이 교행해야 하는 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실제 이 곳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국도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중이던 25t 트럭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9m 높이 옹벽 아래 추락했다. 3m 높이의 추락 방지용 시설물이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이 곳에서는 개통이 되자마자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3월 12일에는 버스 한 대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4월에도 승용차가 같은 장소에서 가드레일과 충돌,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해 발생한 트럭 추락 사고 현장을 목격한 A(75·구례군 구례읍)씨는 “당시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도 사고의 한 요인이겠지만 도로 구조상 문제점이 더 크다. 반드시 구조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살펴보고 수정해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진출입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례와 남원에 거주하면서 이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은 나들목을 이용 할 때마다 위험을 느낀다며 큰 인명사고가 나기 전에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례군청 건설분야에서 40여 년 근무했던 한 퇴직 공무원은 “도로 개설 주체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결과물이다. 가까운 예로 구례 서시천 냉천 IC교차로가 처음 잘못 설치돼 몇 해 전 다시 고친 사례가 있다”며 “수정하면서 당초 사업비보다 10배 이상 예산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구례지사 관계자는 “2012년 사고 이후 가드레일을 보강하고 폭 12m 높이 3m의 추락 방지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구조상의 문제



지난해 12월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고속국도 제27호선) 구례화엄사 나들목 진출입로국도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중이던 25t 트럭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9m 높이 옹벽 아래 추락해 사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살펴 보고 있다.

는 본사에 보고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나들목이 설치된 지역인 구례군은 해당 도로의 위험성을 앞서 인지하고 한국도로공사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구례군 관계자는 “고속도로 건설 당시 수차례 협의가 있었고 구례군은 곡선형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일인만큼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 영유아 부모급여 확대...긴급복지 소득기준 완화

시, 새해 달라지는 77개 분야 공개...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광양시가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분야별로 여성·아동 17건과 청소년·청년·중장년 13건, 노인·복지 10건, 경제·문화·생활 18건, 농어촌 10건, 안전·환경 9건 등 6대 분야 77개 사업이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과 지원금이 확대되며, 출산·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하도록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지원한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실 운영이 토요일까지 확대된다.

광양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수락여행비를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보충종료야동) 자립수당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되며,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구입비(월 1만3000원)를 지원한다.

‘광양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연소득 자격기준이 완화되며, 구입의 경우 최장 10년, 전세의 경우 최장 8년까지 연장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원으로 오른다.

돌봄 취약 어르신 삶의 활력 증진을 위한 ‘고향 부모 마음배달 영상편지 제작 서비스’를 지원하며, 저소득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강좌이용권’의 지원액이 월 8만5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전통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18세 이상 수급자와 치상위계중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최대 2만원 인상된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개인이 현재 주소를 제외한 고향(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고

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예술활동 증명 심의기준이 완화돼 예술인 복지 지원이 강화되며, 식품의 판매허용 기한인 유통기한에서 섭취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또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이 6월까지 연장되며, 농촌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수도작 드론 방제와 비료 살포를 지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자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경우 농업인안전보험이 보장되는 등 농업인안전보험 보장내용이 일부 변경된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이 월 10만원씩 인상되며, 매실 고령목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매실나무 겨우살이 접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광양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이 확대(급성 감염병 사망, 심폐중 교통사고 부상비용, 골절수술비)될 예정이며, 조기 폐차 지원대상 차량이 4등급 경유차 등으로 확대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사랑상품권, 이달부터 10% 할인

170억 규모...소진시 5% 할인

순천시가 1월부터 순천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지류(종이)형과 모바일형 모두 해당되며 재고가 소진되면 별도의 알림 없이 5% 일반할인으로 자동 전환된다. 상반기 계획 중인 특별할인판매 규모는 약 170억원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한도 내에서 상품권 할인판매를 지속 시행해 왔으며, 이달 중순 기준 약 1400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내년부터는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 운영의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모바일형 할인판매 비율을 더욱 확대해 지류 30%, 모바일 70%의 규모로 배정

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류형에 한해서 구매한도를 1인당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한다. 지류와 모바일의 통합한도는 월 50만원으로 유지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소위 ‘깡’ 등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보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류형보다 모바일(카드, QR)형 이용을 권장한다”며 “내년도 정부예산 지원 규모에 따라 10% 특별할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사랑상품권 지류형은 지역 내 농협은행·순천농협·축협·원협·낙협 등 48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형(카드, QR)은 ‘지역상품권 chak(착)’ 앱을 통해 카드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 어르신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군, 신흥마을 주민 일기장 발간...직접 그린 얼굴 그림도

“오늘은 아침 일찍 누룽지를 끓여 먹고 고추를 마지막으로 따라 가야겠다. 오늘도 다 따지 못하고 빨리 와야겠다. 왜냐하면 오늘은 국민의 날이다.”

곡성군 옥곡면 신흥마을에 사는 유평삼 어르신 일기장에 담긴 내용이다. 일기장에 정성 들여 한 자 한 자 써 내려간 글에는 어르신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다.

곡성군이 저출산, 고령화로 침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일환으로 옥곡면 신흥마을 주민들의 삶 이야기를 담은 일기장<사진>을 발간해 화제다.

주민 일기장에는 마을 주민들의 일상이 꼼꼼히 적혀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솔한 주민들의 이야기는 다른 마을에 귀감이 된다. 일기장에는 자필 일기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합심해 그린 개개인의 얼굴 그림도 있다. 얼굴 그림 옆에는 각자 가장 좋아하는 것, 제일 듣고 싶은 말 등이 기록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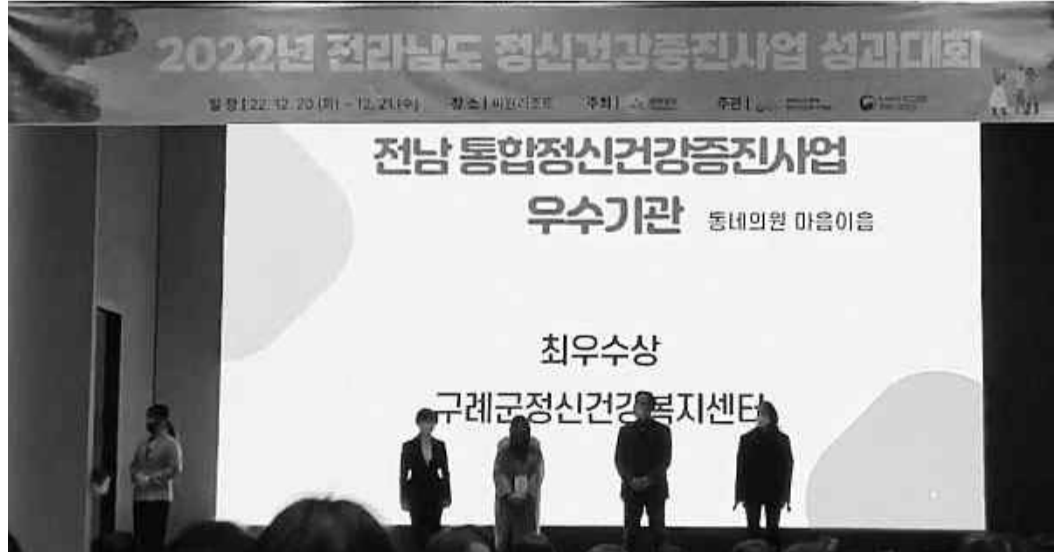
마지막 장에는 마을 이장의 일기장 발간에 대한 소회가 담백하게 적혀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일기장에 쓰인 것처럼 주민들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곡성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민선 8기를 맞아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마을 공동체 부활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마을 분위기를 회복하고 각 마을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마을 사업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구례군, 정신건강증진사업 성과 ‘최우수’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

이정희내과 우수의원 장려상

구례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최근 전남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 우수 시·군 부문 최우수 기관상 및 우수 동네의원 부문 이정희 내과 의원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사진)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은 동네의원에 내원하고 있는 환자들 중 우울, 불안, 자살 등으로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연계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구례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관내 6개 의원이 구례군보건의료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에 있다.

구례군은 업무협약 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정신건강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거나 잠재적 우울 환자의 조기 발견으로 치료 및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장과 함께하는 생명사랑마을 조성 사업, 생명사랑약국 사업 등을 추진하며 사회적 안전망 형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다”라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순천시립도서관 회원

도서 구입시 30% 할인

11월까지...청년 1인 최대 10만원

순천시가 1월부터 11월까지 도서구입비 지원 및 할인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인 ‘청년 꿈 찾기 도서지원’은 순천시립도서관 도서대출회원증을 소지한 만 19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가능한 도서는 거의 모든 서적이 가능하며, 다만 초·중·고등 관련 학습지, 참고서, 간행물, 해외 도서, 만화책 등이 제외된다. 동일 도서는 2권까지 구입할 수 있다.

도서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전 시민 좋은 책 지원’은 도서대출회원증을 소지한 순천시민 누구나 30% 할인받아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할 수 있는 책은 ‘사서와 시민이 추천하는 도서’ 목록으로 한정되며, 순천시민 추천도서는 연 4회이다. 또한 구입 권수를 1인 10권까지 지정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책을 통해 자기 계발을 하고 시민 경제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 서점과 상생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서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순천시립조례호수도서관(061-749-89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벼 출하 장려금 20억 지급

쌀값 하락 대응...통합RPC·지역농협 출하 농가에 포대당 5000원

보성군이 통합RPC, 지역농협 등에 벼를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벼 출하 장려금’ 2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벼 출하 장려금은 수확기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생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군과 지역농협이 각각 2500원을 부담해 포대당 총 5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포대는 총 40만 포대(40kg)다.

올해 쌀 가격은 포대당 5만4000원 선으로 예상되며, ‘벼 출하 장려금’을 통해 5만9000원 선으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만4000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산지 쌀값을 고려하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하 장려금은 농협 우선지급금 차액과 함께 금년 안에 농가에 직접 지급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농가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적인 쌀값 하락에 대응해 군과 농협이 벼 재배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자 이번엔 벼 출하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